

■ 조계종사태에 불자들 정신적 충격 화합기대 물거품 불교위상 실추 '울분'

간절했던 '화합'은 끝내 물거품이 되었다. 스님들의 응답은 불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다. 두차례나 발생한 폭력사태, 여기에 조계사 대응전 방화와 덕왕전 파괴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조계종사태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불자들은 몸살난 것처럼 아프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과거 어떤 분규보다 심대한 불교위상의 실추는 물론 불자들이 입은 상처 또한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화범이 누구이든 불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방화사건은 물론 총무원청사를 두고 스님들끼리 벌인 아비규환을 차라리 꾸미러니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다.

"부처님 모신 법당을 지키지 못한 큰 죄를 짓고 말았다"는 서법해심 불자(경기도 일산)는 "원로스님들까지 싸움의 한편이 되었으니 이제 누구를 사표로 삼느냐"며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에도 전화가 빗발쳤다. 1일 한독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픈 마음을 쏟아냈다. "이번 조계종사태는 해탈사건보다 몇배 더 가슴이 아프다. 이교도의 해탈이 계속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냐고 말하겠는가. 조계종사태가 또 TV뉴스로 나올까 두렵기만 하다."

멍드는 불심은 새싹불자도 예외가 아니다. 짙게 다니는 어린이를 따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친구들이 스님을 막아라고 놀려댄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달래야할지 말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불자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도, 사태해결은 실낱같은 빛도 보이지 않는다. 30일 승려대회 이후

양측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히면서도 서로 자기들의 정당성 주장에 더 급급했다. 더구나 6일 재가불자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모두가 힘겨워 하는 IMF 시대에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어떻게 견디라는 것이냐?"는 안타까운 목소리는 허공에서 찾아질 뿐이다.

그래도 불자들은 이 기회를 불교 바로세우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불자들의 눈빛이 눈물겹다.

"재가불자들이 더욱 응징정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절에 가고, 무릎이 깨져라 삼천배 하고, 경전 공부하고, 불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폭력성 잠재우기가 불교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관련기사 6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잇달아 두번씩이나 그 충격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지만 재가불자들 더 정진하자 ”

“더 늦기전에 대화로 풀어야”

문화부-종교지도자협-종교인협, 조계종사태 해결 촉구

조계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사뭇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나균 문화체육부장관은 2일 '조계종 사태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조계종 분규상황을 불교계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풀어갈 것을 지난달 30일 호소하였음에도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고 있어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를 하고 있

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11월 30일 조계사 경내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로 다수의 부상자까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 늦기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현재의 갈등을 풀어나가 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이에 앞서 11월 30일에도 호소문을 발표, 대화와 화합으로 종단 문제를 풀어나가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도 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계종 사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거대 종단으로서의 조계종이 다이상 분규와 갈등의 국면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종단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정화회의가 지나친 폭력행위를 보여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폭력을 방

관한 공권력의 책임도 적지않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협의회는 "조계종 사태로 인해 다른 종교들도 위상과 권위가 추락하는 등 과정이 적지 않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 한세웅신부 김상근목사 김형교구)도 조계종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 실행

위원장 전종훈 신부, 실행위원 정성길교무, 안효철 간사 등은 3일 오후2시 조계종 중앙종회를 방문, 총회부의장 청화스님과 포교본과위원장 지홍스님을 만났다. 이들은 청화스님으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현 사태와 관련 같은 성직자로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계사를 방문 대웅전과 덕왕전 등을 둘러보기도 했으며 정화회의측과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30일 승려대회 후 청사반환을 위해 조계사로 진입한 승려대회측 스님들이 정화회의가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한 신도가 벽이 뜯린 덕왕전과 화재가 발생한 대웅전을 지켜보며 울먹이고 있다.

돌...유리병...불...아수라장

30일 조계사 현장

<30일 승려대회 직전>

3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릴 계획인 가운데 이날 아침부터 조계사 경내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조계사 주변에는 이미 5천여명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었다.

법당 앞에는 2대의 대형버스와 승용차들이 주차됐고 조계사 신도1백여명은 폐쇄된 법당 문밖에서 각종 피켓을 들고 앉았다. 피켓에는 '스님들은 초발심을 상기하십시오' '권승은 정칙관으로 수도승은 법당으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후 1시쯤부터 조계사 마당에서 불행위원회 스님과 정화회의측 스님들간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법당앞으로 진입한 승려대회측 스님들이 계단을 오르려 하

자 조계사 신도들이 막아 섰고 일부 스님들은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법당 앞 나무위의 스피커에서는 "오늘 승려대회는 오후4시 봉은사에서 강행기로 했다"는 허위방송이 되풀이 됐다.

<승려대회 이후>

승려대회가 종료된 3시 40분부터 '청사탈환'을 목적으로 경내로 진입하는 승려대회측 스님들에 의해 바리케이트로 설치된 트럭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헬멧을 쓰고 물방앗 들어오는 스님들과 총무원 청사 2층부터 5층까지의 난간에 유리병과 돌, 기와조각을 떨어뜨리고 마당을 내려다보는 복면한 스님들의 모습에서는 '유혈사태'도 불사할 것 같은 태세가 역력했다. 조계사 마당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모

덕왕전 벽 뜯리고 대웅전엔 불 대형앰프 동원 밤새 상호비방

여 이 위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승려대회측도 대형 스피커를 탑재한 차량을 조계사 마당에 세우고 "정화회의는 즉각 해산하고 청사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시작했다. 양측의 선무방송은 거짓말과 야유, 폭도, 인신 공격으로 얼룩진 채 새벽까지 계속됐다.

승려대회측 스님들과 직원들이 접근하는 순간, 청사의 난간에서는 콜라병과 화분, 소화기 분말, 석유가 든 생수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승려대회측과 이를 저지하는 정화회의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덕왕전 앞 석탑이 무너지고 덕왕전과 총무원 청사 사이에서는 화재도

두 차례 발생했다.

<30일 저녁부터 12월 1일 새벽까지>
어둠이 내린 조계사 대웅전과 청사 사이에는 돌과 유리조각이 가득했고 소화기 분말도 희뿌연 게 덮여 있었다. 승려대회측 스

스님 39명 출두 요구 경찰, 화재원인도 수사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김영화)는 2일 조계사 사태와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계종 스님 39명에 5일까지 출두를 요구했다.

이들의 조사는 11월 11·19·30일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총

남들은 덕왕전 좌측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을 허물고 청사 1층회관으로 진입하려는 시도였다. 1시간여 만에 벽은 헐리고 사다리가 걸쳐졌지만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정을 넘어서며 조계사 안팎은 양측의 방송소리만 울려 퍼졌다. 간헐적인 공방이 계속됐다.

새벽 2시 30분쯤 대웅전에서는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2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는 진압됐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30일 오후부터 12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공방전에서 3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조계사는 아수라장이 됐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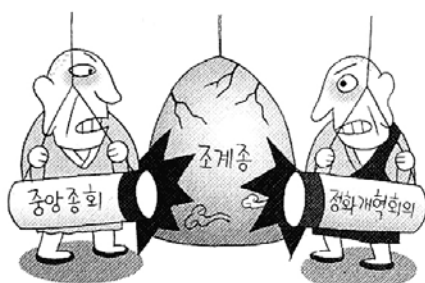
무원청사점거를 둘러싸고 돌멩이와 각종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승려대회의 도로점거에 따른 것.

1일 새벽 발생한 조계사 대웅전 화재와 총무원 청사 유리창에 난 총알구멍에 대한 원인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현대만평

현대만평



깨질라

737-8881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이 땅 곳곳에서 미래의 불국토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으시는 지도자님들의 묵묵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3년을 한결같이 어린이지도자의 연수회를 마련해 온 우리 회에서는 드높은 세계로 노력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지도자를 위한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삶을 일깨우고, 함께 하는 도반으로서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1월 푸르른 날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포교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

■ 연 제 : 불기 2543(1999)년 1월 1일(금) 오후 1시~ 3일(일) 12시

■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법주사 입구)

■ 동 참 금 : 5만원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 자료집, 기념품 지급)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병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신청방법 : 미리 접수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미리 접수하시면

· 접수시 훨씬 편리합니다.

· 강의 「찬불가」 내용 수록 테이프 증정

■ 신청기간 : 12월 7일~23일까지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 대불어(조종환)

■ 접수담당 : 정 희 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 문 의 : 본회 사무국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각 지역 문의처

- 서울 (02)433-1536~7 선재마을 지선 사무국장
- 부산 (051)853-5486~7 부산지구(보현선원) 이유경
- 대구 (05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 대전·충남 (042)633-1141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 경남 (0551)282-7201 경남지구 사무국 박영희
- 대구 (016)505-3143 김형중
- 제주 (064)702-1345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 이사)

주요 연수 내용	강 사	비 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 21세기 새 시대를 여는 불교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주인 - 지도자들을 위한 부처님 말씀	장 위 욱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너도 나도 하나되어!	윤 재 섭	한국여가협회대구연구소장 안동과학대 가정복지학과 전임교수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혜담스님	각화사 주지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	김 정 민	국악인, 영화「휘모리」주연 국악예고, 국회, 각 대학강연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	심산스님 덕진스님	본회 이사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지옥스님	불교사 강주
부처님 당신을 찬탄합니다.	정 유 탁	풍경소리
신나는 모닥불 놀이	박 철 수	·도래미이벤트 대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 포교	철오스님	본회 회장

■총 재 장관 ■부총재 혜종 ■회 장 철오 ■심임부회장 윤성
■이 사 영조 덕진 설봉 해란 원정 삼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 일동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